

김하성, 판타지리그 랭킹 'TOP 300' 입성



▲ 신사버티와 홈 경기에서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리고 백 시코 전통 모자인 스투브레로를 쓰고 기뻐하는 김하성. 사진=연합뉴스

메이저리그에는 30개 구단이 있고, 당장 로스터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만 800명 가까이 된다.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인 무대에서 로스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이 중 랭킹에서 300위 내에 속한다고 하면 최고 수준의 선수임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런데 ESPN이 팬들을 위해 제공하는 '판타지리그 랭킹 TOP 300'에 김하성(28·샌디에이고)이 이름을 올렸다.

4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이 랭킹에 들어간 한국인 선수는 추신수(41·SSG)와 류현진(36·토론토)이 전부다. 판타지리그는 선수들이 실제 경기에서 내는 기록을 토대로 점수를 매겨 유저들끼리 경쟁한다. 좋은 선수일수록 랭킹이 높은 건 당연한데, 추신수와 류현진은 100위 내에도 입성한 적이 있는 특급 선수였다.

김하성은 올해 샌디에이고의 주전 2루수로 안정적인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공격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줌에 따라 랭킹이 상승했다. ESPN이 최근 발표한 랭킹 순위에서도 전체 300위에 올랐다. 김하성의 향상된 입지와 달라진 평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비 지표가 반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TOP 300'에 포함되면서 공격에서도 기대를 걸 만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다.

김하성은 북미 스포츠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이 3일 발표한 판타지리그 랭킹에서도 280위에 올라 역시 300위 내에 들었다.

손흥민, EPL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대기록'

지난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통산 100호골 위업을 달성했던 손흥민(토트넘)이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다.

손흥민은 1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2~2023 EPL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리그 10호골을 기록, EPL 개인 통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해 EPL 첫발을 디뎠다. 그 해에 리그에서 4골을 넣으며 적응기를 가진 손흥민은 다음 시즌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2016~2017시즌 14골, 2017~2018시즌 12골, 2018~2019시즌 12골, 2019~2020시즌 11골, 2020~2021시즌 17골, 2021~2022시즌 23골을 집어



▲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올 시즌 10호 골을 터뜨리는 손흥민(왼쪽). 사진=연합뉴스

넣었다. 올 시즌에도 10골을 채우면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이뤘다. EPL에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는 손흥민 외에 9명에 불과하다. 최고 기록은 웨인 루니의 2004~2005 시즌부터 2014~2015 시즌까지 11시즌이다. 이 기간 동안 루니는 총 208골을 성공시켰다.

손흥민은 이 골로 EPL에서 개인 통산 103골째를 기록, '레전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03골)와 함께 역대 EPL 최다득점 랭킹 32위에 올랐다.

손흥민이 3시즌 연속 EPL 득점 순위 '톱 10'에 들기도 주목된다. 손흥민은 2020~2021시즌(17골) 득점 순위 공동 4위, 지난 시즌 득점 공동 1위에 올랐다.

MLB 오클랜드, 라스베이거스로 이전 착수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를 연고로 하고 있는 미국프로야구(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이전한다.

오클랜드 구단은 지난달 20일 라스베이거스에 야구장 신축을 위해 부지 구매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고를 둔 캘리포니아주 베이 지역에 새 구장을 지을 수 없게 되자 오클랜드 구단은 지난달 20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지역 인근 토지 49에이커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오클랜드 구단은 이곳에 3만 명에서 3만5천 명을 수용하는 개폐형 지붕을 갖춘 새 구장을 내년에 착공해 2027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1901년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라는 이름으로 창단해



▲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로고. 사진=위키피디아

캔자스시티 애슬레틱스를 거쳐 1968년부터 연고지를 오클랜드로 옮겼다.

오클랜드 구단은 55년 넘게 홈구장으로 이용해 온 오클랜드 콜리시엄을 대신할 새 야구장을 수년 전부터 물색해왔다. 오클랜드 콜리시엄 임대 사용 계약은 2024년에 끝난다. 워낙 낙후한 시설이라 오클랜드 콜리시엄을 찾는 원정팀의 원성이 자자할 정도다. 그러나 오클랜드시는 재정난을 들어 구장 신축을 반대해왔다. 이에 MLB 사무국은 2021년 오클랜드 구단이 연고지를 이전하도록 승인했다.

한편, 오클랜드에 연고를 뒀던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2019년 인근 샌프란시스코로 옮기고, 미국프로풋볼(NFL) 오클랜드 레이더스는 2020년 라스베이거스로 떠난 바 있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